

2016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

담당 :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(042-331-0092 / 010-3471-7468)

수신 : 각 언론사

발신 : 2016행정사무감사대전시민네트워크

시행 : 2016년 11월 14일(월)

제목 :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(총 3장)

<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>

201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주요 내용을 정리, 발표합니다.

1.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

구분	행정자치위원회	복지환경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교육위원회
15일	소방본부 인재개발원	시설관리공단	도시주택국	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

2. 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

■ 행정자치위원회(위원장 : 박혜련, 위원 : 박상숙 김경시 박정현 김종천)

- 피감기관 : 소방본부, 인재개발원

- 소방본부 주요 안건

1) 특구소방서 설치에서 특수대응단으로 변경관련

+ 송강,관평 일대에 소방서가 없고, 공단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특구소방서를 추진한 것인데, 특구소방서가 아닌 특수대응단으로 이 지역의 위험 대비가 가능한냐는 질의에 특수대응단에 구급차와 펌프차의 단계적 배치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.

+ 특수대응단은 대테러에 맞는 소방조직이므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서 설치 노력 주문

2)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

+ 국정감사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수가 다른 이유를 묻자 2016년에는 공동주택 등 실제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곳을 포함시켜서 과거 보고

자료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.

- + 경찰청, 대전시,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

3) 원자력 방사능 사고 대응 훈련

- + 대전의 원자력 방사능 사고 대응 훈련이 2015년 3회 실시인데, 2016년에는 1회만 실시한 이유를 질의하자 2016년에도 3회 실시했으나 시민안전실 종합훈련 1회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기록했다고 답변.

4) 기타

- +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맞는 종합적 대책 및 매뉴얼 마련 요구
- + 소방본부 업무 관련 위원회의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

- 인재개발원 주요 안건

1) 교육 강좌의 신설 및 폐지

- + 운용 실적이 저조한 과정의 통폐합 및 폐지, 현장방문 교육, 토론교육 추진을 칭찬하고, 거버넌스, 양성평등, 리더십,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의 강의와 강사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

큰 쟁점사항이 없는 피감기관이지만, 대안 제시 및 정책 제안보다는 한정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.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치가 잘못 기록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집행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.

■ 복지환경위원회(위원장 : 박희진, 위원 : 정기현, 안필응, 권중순, 김동섭)

- 피감기관 : 시설관리공단

- 주요안건

- 1) 수질은 비슷하나 약품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
- 2)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적발건수의 차이에 대한 질의
- 3) 수의계약 맺은 업체 중 지방업체의 비율에 대한 질의
- 4) 수영장 및 하수처리 등 물 관련 주민 불안 해소 시킬 홍보 방법 요청
- 5) 대전시설관리공단 소속 운동선수 관리 및 활용 방법
- 6) 수질오염총량제 항목에 해당되는 총인 저감대책
- 7) 무지개복지센터 매출, 인건비 및 장애인,비장애인 고용 비율 등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

- 8) 하수처리장 방류구 주변 갑천 수질 모니터링 협업(금강환경유역청, 보건환경연구원)
- 9) 타슈 자전거 종류에 따른 운영 효율성 질의

대부분 의원들은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가 높았고,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였다.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 태도를 보였다. 일부 의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아 보였고,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전혀 준비가 없었다.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 확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. 의원이 내용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였으나, 업무파악이 부족해보인다.

■ 산업건설위원회(위원장 : 전문학, 위원 : 최선희, 황인호, 윤기식, 송대윤, 조원휘)

- 피감기관 : 도시주택국

- 주요안건

- 1) 갑천천수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, 재정적인 문제, 도시 균형 발전 문제 집중 질의 및 대책 요구
- 2) 도시 관리, 안전,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한 질의

대전지역 최대개발사업인 갑천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고, 집행부는 기존 계획을 해명하고 설명하는데 급급했다.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대전의 인구감소와 도시 주택 공급 과잉, 원도심의 쇠퇴 등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방어하는데 급급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행정적인 과제로 넘겨졌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모범적이었으나 질의내용에 대한 준비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, 대책을 요구하는 구체성은 다소 미흡했다.

■ 교육위원회(위원장 : 박병철, 위원 : 구미경, 윤진근, 김인식, 심현영)

- 피감기관 : 대전평생학습관, 대전학생교육문화원, 한밭교육박물관, 대전학생해양수련원

- 주요안건

- 1) 대전평생학습관 내 “정명희미술관” 운영에 관하여
 - 정명희화백이 기증한 1397점의 작품수에 비해 전시작품은 얼마되지 않아 관람객 유도에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
 - > 전시공간의 협소함과 운영은 정명희화백의 주도하에 직접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년 4~5회의 테마별로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있음.

- 정명회화백의 기증목적에 맞게 보다 많은 작품을 대전시민 및 학생이 접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, 운영되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.
- > 상시 전시, 운영을 위해서는 미술전공의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실로는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임
- 학부모와 미술협회 등 관련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을 제안.

2) 평생학습관의 “성년식” 행사 취소에 대하여

- 의회에서 성년식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 후 그 이유를 위법소지때문이라 했는데, 교육청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지적
- >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므로 교육청의 성년식 행사는 ‘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 제5조’에 근거 위법사항으로 판단됨. 성년식 대신에 희망하는 단위학교에 성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 함.

3)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강사진 자격에 대하여

- 수련원 지도진의 인원 및 자격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의
- > 지도부에 소속된 직원은 8명으로 모든 직원들이 해양관련 자격증을 거의 다 소지하고 있지만 200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할 시에는 지도인력이 부족하므로, 대전에 있는 전문강사진 풀을 이용하여 인원을 보충하고 있음.
- 보조강사진은 자격증이 필요없이 단순 나이제한에만 채용기준을 두는 이유에 대한 지적
- > 보조강사진은 장비이동 및 학생 인솔 등의 전문강사진의 보조인력이므로 자격증을 요하지 않음.

행감자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보니, 질의시 타당한 근거와 자료제시가 없이 주먹구구식 질문이 이어졌다. 모 의원의 경우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로 일관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. 모의원은 평생학습관장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교육청을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했다.